

“도쿄올림픽 금 겨냥...광주여대 신궁 명맥 이을 것”

양궁 국가대표 선발 광주여대 안산

“기보배, 최미선 선배의 금메달 전통을 잇고 싶습니다.”

29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만난 안산은 목표를 다부지게 말했다. 광주여대는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광주시청),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을 배출한 명문이다. 그 명맥을 잇겠다는 것이다.

안산은 지난 23일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2021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체고 2학년 때 첫 태극마크를 단 안산은 4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안산은 “올림픽 티켓이 걸린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은 기존의 선발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느꼈다”며 “평소처럼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사대에서다보니 목표로 했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산초 3학년때 양궁에 입문한 안산은 광주체육중에 입학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6년 제4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남녀양궁대회

중학교 맨 사상 첫 전종목 우승

고교 이후 4년 연속 국가대표

신체 조건 좋고 경기력 기복 없어

“기보배·최미선 선배 금 전통 이어

생애 첫 올림픽서 금빛 낭보 쏘겠다”

여자 중등부에서 국내 양궁 사상 최초 전종목(30m, 40m, 50m, 60m, 개인종합,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안산은 이 대회에서 개인종합(1386점), 50m(341점), 30m(359점)에서는 한국타이기록 겸 대회신기록을 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간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안산은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며 사실상 성인무대인 광주체고에 진학했다.

고등학생부터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며 대표선발전에 나갈 자격도 얻어 본격적인 ‘무한경쟁’의 일원이 된다.

안산은 광주체고 1학년때 ‘전국 체육고교 체육대



안산이 29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도쿄올림픽을 향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회’에서 쟁쟁한 2,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3관왕을 차지하며 성인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리고 광주체고 2학년때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됐다.

안산의 놀라운 성장에는 광주시양궁협회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도 한몫했다.

여자 양궁 국가대표 산신인 광주여대에 입학한 안산은 김성은 감독의 조련 하에 기록 없는 경기력

을 선보이며 마침내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은 “산이는 보통 여자 선수들이 쓰는 40~42파운드 활보다 힘과 기술이 필요한 43파운드 활을 사용한다. 타고난 신체조건과 집중력이장점인만큼 국제대회 경험만 쌓는다면 무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안산은 2년 뒤인 오는 7월23일 다시 그 무대에 선다.

안산은 “우승할 당시 자세와 느낌이 좋았다. 다시 그 곳에 선다면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안산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와 함께 출전한다. 지난 23일 대표팀이 확정되고 언니들과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을 했다고 한다.

안산은 “세계 최강 한국 여자양궁 올림픽 9연패 도전의 일원이 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응원과 격려의 힘으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8언더로 개인 최소타 기록...광주 출신 김우정 ‘출발 굿~’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3년차 김우정(23)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첫날 개인 최소타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첫 우승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광주 출신인 김우정은 29일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쳤다. 2019년 데뷔한 김우정은 KLPGA투어에서 지금까지 66타를 네 차례 친 적이 있을 뿐 64타는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대 태권도부 선수단. <광주대 제공>

광주대 태권도 여영민 ‘금빛 발차기’

종별선수권...김명성 은·이현준 동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태권도부가 ‘2021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주목받은 성적을 일궈냈다.

광주대 태권도부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등 3개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태권도협회와 안동시태권도협회가 주관했다.

광주대 여영민(1년)은 대학일반부 -63kg급 결승전에서 9-6으로 승리,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명성(1년)은 대학일반부 -74kg 급에서 은메달, 이현준(2년)은 대학일반부 -6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대 태권도부 강경도 감독은 “코로나19로 때문에 태권도 대회가 1년 넘게 개최되지 않았는데, 오랜 만에 열린 대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기쁘다”면서 “더 많은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돌아온 핵주먹’ 타이슨 “9월 루이스와 붙는다”

‘돌아온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5)이 다음 상대로 레녹스 루이스(56)를 지목했다.

타이슨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와의 인터뷰에서 “루이스와 9월에 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슨은 지난해 11월 로이 존스 주니어(52)를 상대로 15년 만의 복귀전을 치렀다.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타이슨은 다음 상대로 에반더 홀리필드(59)를 원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타이슨과 루이스는 2002년 6월 맞붙어 루이스

가 8라운드 KO승을 거뒀다.

당대의 주먹 타이슨과 홀리필드를 모두 이기며 영국의 복싱 영웅으로 불렸던 루이스는 2004년 은퇴를 선언했다.

1986년 스무살의 나이로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타이슨은 ‘핵주먹’을 앞세워 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설적인 복서다.

통산 전적 58전 50승(44KO) 6패 2무에 빛나는 타이슨과 44전 41승(32KO) 2패 1무의 루이스가 19년 만의 재대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석 맥심배 바둑 우승 해군 복무 이지현 준우승



김지석 9단이 29일 맥심커피배 우승컵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신(入神·9단의 별칭) 최강’ 김지석 9단이 29일 맥심커피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지석은 이날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2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상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시상식은 7전 8기 끝에 맥심배 정상에 선 김지석, 후원사인 동서식품의 황택근 전무와 최상인 상무,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준우승을 거둔 이지현 9단은 군 복무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김지석은 프로 9단만 참가할 수 있는 맥심배에 8연속 출전 끝에 첫 우승을 거뒀다. 지난날 29일과 이달 5일 열린 결승 1:2국에서는 이지현을 연속 불계로 꺾었다.

김지석은 “성적이 좋은 9단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출전만으로도 영광”이라며 “모든 판이 쉽지 않았지만 특히 결승전 상대인 이지현 선수가 우승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지현 9단은 군인 신분인데도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게 전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군으로 복무 중인 이지현은 이번 대회에 온라인 대국으로 입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2관 내일의 기억, 자살어보
- 3관 더 스파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도넷 : 불의 고리 대폭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 4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5관 더 스파이
- 6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9관 미나리, 서복, 고질라 VS. 콩
- 7관 씨네카를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도넷 : 불의 고리 대폭발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노비디
- 8관 씨네카를 서복, 어른들은 몰라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GAC 11시 음악산책2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 2021.05.28.(금)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즐거움 문화산책

